

# 독일 코로나19 백신 개발 동향

2021년 5월 17일 (KIST 유럽연구소 변재선 책임연구원)

1. 상설예방접종위원회: 늦어도 2022년까지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되어야 함  
(STIKO: Auffrischung des Corona-Impfschutzes spätestens 2022 nötig)

## 생성기관

Ärzte Zeitung

## 원문 작성일

2021-5-16

## 원문 링크

<https://www.aerztezeitung.de/Politik/STIKO-Auffrischung-des-Corona-Impfschutzes-spaetestens-2022-noetig-419656.html>

### □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 필요

- 독일 상설예방접종위원회(STIKO) 토마스 메르텐즈(Thomas Mertens) 위원장은 모든 사람이 2022년에 백신을 추가 접종하여야 한다고 가정함
  - 사민당(SPD) 보건 전문가, 칼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는 백신 접종후 면역이 6개월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 일부는 올해 가능에 이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함
  - 독일에서 백신이 효과적이지 않은 변이가 확산되면 조정된 백신을 더 일찍 접종 시작해야 할 수도 있음
- 메르텐즈(Mertens)는 백신 제조 기업이 현재 알려진 변이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추정되는 변형 백신을 이미 연구하고 있음을 지적함
  - 이미 특정집단 또는 일반적으로 백신 보호가 약화되었다는 것도 고려 가능
  - 특정 연령그룹 또는 특정 기저질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면역방어가 약물로 조절되는 환자의 경우 단기적으로 3차 접종이 필요할 수 있음
- 현재 독일 인구 36.5%, 3천만명 이상이 적어도 1회 예방 접종을 받았으며, 9백만명 이상, 인구 10.9%가 완전 접종을 받았음

2. 이탈리아 연구는 명백한 답을 제공,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이 실제로 얼마나 보호하는지? (Italienische Studie liefert eindeutige Antwort, Wie gut schützt die Erstimpfung gegen COVID-19 wirklich?)

생성기관

RTL

원문 작성일

2021-5-16

원문 링크

<https://www.rtl.de/cms/wie-hoch-ist-der-infektionsschutz-nach-der-corona-erstimpfung-italienische-studie-liefert-antwort-4760748.html>

- 이탈리아 백신 1차접종 효과 연구 결과
  - 이탈리아 국립 보건연구원(Nationale Institut für Gesundheit)은 화이자/바이온텍, 모더나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예방 효과를 조사,
    - 백신중 하나의 1차 접종 35일후에 감염률이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연구 결과 심각한 중병 발현도 감소, 입원이 90% 감소되었음으로 입증됨
    - 모든 연령대의 남녀 모두에게서 예방 접종 후 5주만에 사망자가 95% 감소됨
  - 국립 보건연구원의 실비아 브루사페로(Silvio Brusaferrò) 원장은 "이러한 데이터는 예방접종 캠페인 효과와 긴급 사태 종료를 위해 신속히 백신 접종을 달성할 필요성을 확인시켜 준다고 주장함
  - 국립보건연구원 연구팀은 보건부와 협력하여 이탈리아에서 1,370만명의 백신 접종 데이터를 조사 평가함
    - 이 연구는 4개월간 지속, 2020년 12월 27일 시작하여 2021년 5월 3일에 종료
    - 이탈리아는 백신 캠페인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최초의 EU 국가임
3. 임상 2상 연구, 사노피사 코로나 백신 경쟁에 재합류 (PHASE 2-STUDIE, Sanofi steigt wieder in das Rennen um Corona-Impfstoffe ein)

생성기관

WirtschaftsWoche

원문 작성일

2021-5-17

원문 링크

<https://www.wiwo.de/unternehmen/industrie/phase-2-studie-sanofi-steigt-wieder-in-das-rennen-um-corona-impfstoffe-ein/27197082.html>

- 사노피, 코로나 백신 2상 연구 성공적 종료, 3상 예정
  -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Sanofi)사는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협력 개발한 백신 후보의 2상 연구결과 강력한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
    - 수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3상 연구가 앞으로 몇 주 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 성공시 올해 4분기에도 백신이 승인될 수 있음
    - 18세에서 95세까지 피험자를 시험한 중간 결과, 2차 접종후 95~100% 효능, 항체 형성을 나타냄
  - 사노피사는 일반적 독감 백신에 사용하는 동일한 기술(재조합 DNA)을 사용하지만 GSK의 첨가 물질을 활용하여 (면역반응을) 강화함
    - 사노피는 코로나 백신 개발 경쟁에서 Biontech / Pfizer, Moderna, Johnson & Johnson 및 AstraZeneca와 같은 경쟁 업체보다 뒤쳐졌음
    - 고령층에 대한 효과가 미약하였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다시 시험을 시작, 시장 진입을 연기하여야 했음
4. 사노피 주식 다소 강세 : 사노피-GSK 코로나 백신 곧 3상 돌입 (Sanofi-Aktie etwas fester: COVID-19-Impfstoff von Sanofi-GSK geht bald in Phase III)

생성기관

finanzen.net

원문 작성일

2021-5-11

원문 링크

- 사노피-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백신 3상 돌입 예정
  -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Sanofi)사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협력하여 개발한 백신은 2상에서 성공, 수주내 대규모 3상 연구가 개시될 예정
    - 3상연구에서 다수의 국가에서 35,000명 이상의 성인에서 두 가지 물질이 혼합된 백신의 효과를 조사할 것임
    - 중국 우한 변이와 남아프리카 변이도 시험에 포함되며, 성공시 예방 접종은 4분기에 승인될 것으로 기대됨
5. 모든 사람을 위한 백신? 어느 지역에서 우선순위가 해지되었으며, 백신 접종 희망자에게 의미는 무엇인가 (Impfstoff für alle? Wo die Priorisierung jetzt fällt und was das für Impfwillige bedeutet)

#### 생성기관

Handelsblatt

#### 원문 작성일

2021-5-16

#### 원문 링크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deutschland/corona-pandemie-impfstoff-fuer-alle-wo-die-priorisierung-jetzt-faellt-und-was-das-fuer-impfwillige-bedeutet/27191892.html?ticket=ST-5817807-MIHmzceRvLtr5gxMgiEy-ap2>

- 백신 접종 우선순위 해지 관련 논의
- 독일 바이에른, 바이에른, 바덴 뷔르템베르크, 베를린, 작센에서 백신 우선순위를 해지하여 모든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됨
  - 점점 더 많은 주에서 백신 접종을 가속하기 위해 우선 순위를 해지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주 등 많은 연방주는 현재까지 백신을 접종 받지 못한 수백만명의 위험 집단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 해지 결정을 거부함

- **법정건강보험 중앙연구소(ZI) 도미니크 스틸프리트(Dominik Stillfried) 소장은 엄격한 우선 순위로 인해 예방접종율이 느려지는 지점"에 이르렀다고 주장**
  - 예방접종률 증가에 따라, 접종 희망자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동시에 의원에는 긴 대기자 명단이 있음
  - 지금은 모든 주에서 우선 순위를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실제 백신 접종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없음
  - 다음 주에 의원은 바이오엔텍/화이자 190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100만 회분을 주문했지만, 각기 160만, 85만 회분만 공급될 예정임
  
- **독일 가정의협회(Hausärzteverband) 울리히 바이겔트(Ulrich Weigeldt) 회장은 전혀 대책없이 발표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함**
  - 백신 부족 상황에 문의가 쇠도할 것이며 미접종자들은 의원 직원들에게 공격적이 될 것이라 우려
  
- **의료보험 의사협회(KBV) 슈페판 호프마이스터(Stephan Hofmeister) 부회장은 우선순위 해지 발표를 "비생산적"이라고 강조**
  - 마아부룩 의사노조도 우선순위에 따른 백신 접종을 찬성, 예방접종 우선 순위 완전 포기는 잘못이라 발표, 선착순은 약한자를 후순위로 남게 한다 주장
  
- 이미 독일 연방정부는 상설 예방접종위원회가 60세 이상에게 권장한 Astra-Zeneca와 J&J 백신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해제함
  - 젊은 사람들은 백신 접종전 의료 상담과 개별 위험 분석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다른 주에서 Biontech, Moderna 백신은 3순위 접종 우선순위가 여전히 적용됨
  -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경찰 및 소방대 직원, 에너지 보건 운송 등 주요 인프라 분야 직원이 포함됨
  - 연방정부는 백신 부족으로 6월에 예방 접종 우선 순위를 해제할 계획임

## 6. 코로나 19: 백신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Covid19: Wer bei Impfschäden zahlt)

### 생성기관

msn/Börse Online

### 원문 작성일

2021-5-17

### 원문 링크

<https://www.msn.com/de-de/finanzen/top-stories/covid19-wer-bei-impfsch%c3%a4de-n-zahlt/ar-BB1gKRTJ?ocid=HPDHP17&li=BBqgbZL>

- 독일 백신 피해자 보상 관련
- 독일에서 백신 접종이 대규모로 증가됨에 따라 통계적으로 누군가는 접종 피해를 입을 위험이 커짐
  - 독일 정부는 단순 부작용 이상 손해가 있을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개인 보호도 가능함
- 로버트코흐연구소(RKI) 라스 샤데(Lars Schaade) 부소장은 감염자의 약 10%, 3백만명의 감염자중 약 34만명이 롱코비드 후유증을 앓고 있기에 예방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
- 파울에리히연구소(PEI)는 안전성 보고서에서 현재 백신 1,000회당 2.2건의 부작용 의심 사례를 확인, 총 31,000건 이상 의심 사례가 보고됨
  - 향후 가정의와 기업 의사가 본격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면 부작용 사례 숫자도 크게 증가할 것이며 불확실성을 초래, 백신 회의론자들을 고무시킬 것임
- 비텐/헤르데케(Witten/Herdecke) 대학의 의학법 연구소장인 페터 볼프강 가이지크(Peter Wolfgang Gaidzik)는 백신 접종 피해자는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
  - 의사는 상담시 위험을 설명하고 예방 접종 실수가 없는 경우 책임이 없으며, 백신 피해자는 연방보훈법(Bundesversorgungsgesetz)에 따라 혜택을 받게됨

- 의료 변호사 가이지크(Gaidzik)는 그러나 피해자가 고통비용(Schmerzensgeld)을 보상받을 수는 없고 민법상 청구에 의해서만 가능함
  - 공적 책임은 법적 책임이지만, 이는 과실 조치를 전제로 함, 예를들어 제약사가 오염된 약물 배치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약사가 책임을 짐
  - 그러나 민법상 피해자는 백신 접종이 피해의 원인이라는 완전한 증거를 제공하여 스스로 입증해야 함
  
- 슈트랄순드(Stralsund) 요양원 사례와 같이 부적절한 교육으로 5배 과다 용량을 투여한 경우 예방 접종 피해 가능성이 충분, 백신 피해 보상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음
  - 백신 접종으로 인한 병원 및 치료 비용과 소득 손실시 공공 및 개인 건강보험사에서 현금을 지급함
  - 피보험자 사망시 생명보험사는 계약상 합의된 금액을 가족에게 보장함
  - 백신접종으로 직업상 장애로 이어져 영구적인 손해를 유발하는 경우 개인 보호가 적용, 직업장애 연금보험(BU Poicy)은 건강상의 이유로 최종 업무의 50% 이상을 더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금을 지급
  
-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보험사들은 기저질환자의 건강 상태를 매우 신중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정책에 다소 문제가 나타남
  - 프리미엄 보험료 요청, 보험 가입 신청서를 연기, 3~12개월의 대기 기간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함

7. 독일 코로나: 슈판 장관 6월 7일에 백신 접종 우선순위 해지 희망 (Corona in Deutschland: Spahn will zum 7. Juni Impf-Priorisierung aufheben)

생성기관

Frankfurter Rundfunk

원문 작성일

2021-5-17

## 원문 링크

<https://www.fr.de/politik/corona-in-deutschland-spahn-juni-impf-priorisierung-aufheben-pandemie-coronavirus-bundesregierung-90612331.html>

- 독일 보건부 장관 6월 7일 백신우선 순위 해지 희망 발표
  - 슈판(Spahn)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 백신 우선순위를 6월 7일부로 해지하는 제안을 발표함
    - 독일 만 16세 이상 모든 성인은 모든 예방접종 센터 혹은 의원에서 백신 접종 일정을 신청할 수 있게됨, 이미 아스트라제네카의 우선순위는 해지됨
  - 백신 공급 부족으로 모두가 6월에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님
    - 향후 6월까지 3주간 식료품점, 운송, 교사 및 법원 종사자 등이 포함된 3순위 그룹의 접종이 완료될 예정임
    - 6월 7일부터는 회사의 및 개별의원 의사들이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에 관여하게 됨, 기존 합의된 일정은 관계없이 유효함
8. 의학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미 없음: 라우터바흐 1차 접종자 완화를 강력히 거부 („Medizinisch nicht haltbar und nicht sinnvoll“: Lauterbach lehnt Lockerungen für Erstgeimpfte strikt ab)

## 생성기관

msn/ Tagesspiegel

## 원문 작성일

2021-5-16

## 원문 링크

<https://www.msn.com/https://www.msn.com/de-de/nachrichten/coronavirus/%e2%80%9c-medizinisch-nicht-haltbar-und-nicht-sinnvoll%e2%80%9c-lauterbach-lehnt-lockerungen-f%c3%bc-erstgeimpfte-strikt-ab/ar-BB1gN82y?ocid=HPDHP17&li=BBqgbZLde-de/nachrichten/coronavirus/%e2%80%9c-medizinisch-nicht-haltbar-und-nicht-sinnvoll%e2%80%9c-lauterbach-lehnt-lockerungen-f%c3%bc-erstgeimpfte-strikt-ab/ar-BB1gN82y?ocid=HPDHP17&li=BBqgbZL>

- 백신 1차 접종자의 조기 규제 완화 반대
- 작센주 미하엘 크레쉬머(Michael Kretschmer) 주지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후에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자고 주장

- 사민당 보건 전문가인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는 변이가 확산되고 있기에 위험이 너무나 크다고 강력히 반대함
- 영국의 경우 인도 변이 B.1.617.2가 확산되어 많은 1차 백신 접종자가 감염되고 있음을 경고

○ 오스트리아는 곧 1차 백신 접종자에게도 레스토랑, 호텔 및 행사장 입장에 혜택을 부여할 예정임

- 볼프강 뮉슈타인(Wolfgang Mückstein) 보건부 장관은 5월초에 의회에서 1차 접종후 21일후에 테스트 의무에서 해지될 것을 보고함
- 5월 19일부터 식당, 호텔, 스포츠 및 문화시설이 개장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백신 접종을 위한 커다란 유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